

## • CEO 메시지 •

## 기업의 글로벌화

김홍선/시큐어소프트(주) 대표

몇년 전 중국인 사업가와 글로벌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공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한 그는 요즘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나 미국·일본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일단 자국 내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신경을 덜 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다르다. 작은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부터 글로벌 전략을 갖고 한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기업의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제 글로벌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단일 개념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자세를 국내 위주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각

나라의 시장과 문화 상황에 접목하는 현지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재미동포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이민과 유학이 급증한 시점은 70년대 전후이다. 그 당시 암울한 국내 상황도 있었기에 한국에서 바라본 미국은 꿈의 천국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맨 손으로 건너 가서 정착을 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1.5세, 2세로 자라났다.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 사회에서의 입지를 키워 갔다.

미국식으로 살아온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갖게 된 시점은 90년대 이후 자유민주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부터다. 이들은 경제계·법조계·학계·정계 등에서 엘리트로 자리잡으면서 1세대들이 아쉬워하던 전문적인 커리어(career)와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이제 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화 시킬 수 있고, 양국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에 이르렀다. 글로벌화와 현지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의 기업 문화를 이해해서 우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에 맞게 상품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화와 현지화를 추구할 때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 주요뉴스 •

## 7월 두 자리 성장 벤처수출 '이상무'

환율 등 경제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7월 중 벤처기업 수출이 5억 4600만달러로 지난해 7월보다 27.2% 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대기업(23.1% 증가), 중소기업(12.2% 증가) 등을 포함한 7월 중 전체 수출증가율(19.4%)을 초과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수출은 산자부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1~7월 수출누계는 36억 77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1%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4%포인트 높아진 4.11%를 기록했다.

〈심규호 기자 khsim@etnews.co.kr〉

출처 : 전자신문, 2002/09/04

## 코스닥기업 유동비율 상장사 1.5배

코스닥의 12월 결산법인 중 22개사의 현금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기업의 유동비율이 상장사의 1.5배 수준이어서 단기채무 지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697개사의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기 현금자산이 1년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22개사는 단기 현금자산이 8월 28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보다 많았다. 단기 현금자산은 보유현금과 1년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코스닥기업들의 유동비율이 상장법인 98%의 1.4배, 당좌비율이 상장법인 77%의 1.5배라는 것은 단기채무 지불능력이 상장사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ejkim@dt.co.kr〉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2/09/02